

## 근우회와 신간회의 연대성 검토

김정인\*

### 〈차 례〉

1. 머리말
2. 근우회의 연대체로서의 면모
3. 근우회와 신간회의 상호 연대 인식
4. 학생운동 지원을 통해 본 연대 양상
5. 맺음말

### [국문초록]

1920년대 협동전선에 기반한 민족유일당을 지향하며 등장한 신간회와 여성운동의 협동전선으로 출현한 근우회는 사건 혹은 사안별로 양자 간의 연대기구를 만들어 활동하지 않았다. 근우회와 신간회 간의 연대는 ‘자매단체’라는 표현이 무색할 만큼 창립 초기 1년간 집중적으로 상호 지지를 표명하는 선언적 연대가 주를 이뤘다. 그러나 근우회와 신간회에서 동시에 활동한 여성운동가들을 통한 인적 연대는 양자가 해소될 때까지 명맥을 유지했다. 실천면에서 볼 때 두 단체의 활동 초기에 발발한 숙명여고보 맹휴사건에서 학부형회라는 공동대응기구에서 함께 행동하는 면모를 보였지만, 활동이 차츰 위축되던 시기에 일어난 광주학생운동에서는 여학생 연대를 지도하고 지원하거나 전국적 연대를 촉구하는 민중대회 계획을 준비하는 등 별도로 대응하는 간접적인 연대에 그쳤다. 이처럼 근우회와 신간회 각각은 연대체이면서도 양자 간의 직접적인 연대를 시도하지 않았으며 사회운동 차원에서의 느슨한 연대로 각립했다.

[주제어] 근우회, 신간회, 연대성, 자매단체, 협동전선

\* 춘천교육대학교 교수

## 1. 머리말

근우회를 흔히 신간회의 ‘자매단체’라고 부른다. 식민지기에 운동단체와 관련해 종종 ‘자매단체’라는 표현이 쓰였다. 1926년 1월 목포에서 제유공 파업이 일어나자 “시내 자매단체에서는 동정금 모집에 극력 활동하여 동 파업단에 송금”<sup>1)</sup>했다고 한다. 여기서 자매단체는 목포여자청년회, 목포자유노조 등을 가리킨다. 이 문맥에 따르면, 자매란 수평적 연대를 뜻한다. 제유공 파업에 앞서 1925년 12월에 파업을 단행한 목포자유노조가 임시총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에도 자매단체로서의 수평적 연대 인식이 잘 드러나 있다.

자매단체로서 만일의 일이 있을 시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또 응원하되 운동에는 동일한 보조를 취할 것<sup>2)</sup>

그런데 근우회와 관련한 기사에서는 의존적 연대를 ‘자매 관계’로 표현하고 있다.

돌이보면 근우회의 창립은 조선 여성운동 내지 조선 운동의 전선에 있어 중대한 조직 결성의 하나였던 것은 틀림없었다. 근우회의 조직 전에도 각지에 여성단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의 조직형태로 분립되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수양단과 같은 것만 있었고 참으로 여성운동의 지도적 이론을 캐어내고 그 이론을 실천하려는 단체로는 서울을 중심 삼아 도회지의 남성들의 사회단체와 자매관계를 가진 것이 있었으니 그 수는 극히 적었다. 그러다가 시대의 움직임은 전조선적으로 여성의 총결합을 요구하는 때를 가져왔다. 이것은 시대적 반영, 즉 조선의 정치적 경제적 변천의 반영으로서 나타난 것이었으니 전조선의 각층 각 방면의 여성의 총결합성을 외치고 근우회가 조직되기는 1927년 5월이었다. 이것이야말로 종래 가족제도 밑에서 남성의 억압과 시대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의 불균형에 대한 새로운

1) 「유공파업과 자매단체 동정」, 『조선일보』, 1926년 1월 26일, 1쪽.

2) 「목포자유노조」, 『조선일보』, 1925년 12월 16일, 1쪽.

부르짖음으로 정치적 의의가 포함된 것이었다. 그리하여 전국에 호응된 수는 70여 지회에 7천여 회원을 획득하게 되었던 것이다.<sup>3)</sup>

즉, 근우회 이전의 여성운동이 남성의 사회단체와 의존적으로 연대했던 양상을 ‘자매관계’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므로 근우회의 탄생은 기존의 의존적 연대, 즉 자매 관계를 넘어 여성운동의 독자성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근우회를 신간회의 자매단체로 호명한 사례는 해방 후에 등장한다. 1962년 조선일보가 개최한 퇴직 여기자 방담회에서 근우회에서 사회주의계 간부로 활약했던 황신덕은 신간회와 근우회 운동에 계몽운동이라는 성격을 부여하고 신간회의 자매기관으로 근우회가 조직되었다고 회고했다.

어떻든 하는 데까지 해보자는 애국심과 동지애에 불타 합심해서 계몽운동에 나섰습니다. 모모한 인사들이 그 시절 모두 기자로 있었는데 신간회를 조직했고 그 자매기관으로 여성단체인 근우회를 조직했는데...<sup>4)</sup>

여기서 자매기관이라는 표현은 신간회의 결성을 먼저 상정하고 그 자매기관으로서의 근우회의 탄생을 언급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수평적 연대보다는 의존적 연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후 근우회 활동 당사자로부터 나온 ‘근우회는 신간회의 자매단체’라는 의존적 연대 프레임은 언론은 물론 독립운동사 연구를 통해 증빙을 생략한 채 관성적인 것으로 자리를 잡아갔다.

이러한 연구 풍토 탓인지 이제껏 근우회와 신간회 간의 연대성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는 없었다. 다만 이에 관해 단편적이지만 선구적 연구성과로는 김창순·김준엽과 남화숙의 연구가 있다. 김창순·김준엽은 근우회와 신간회는 그 정신, 사상이 같다는 뜻에서는 동등한 자매단체라고 불리기는 했지

3) 『여성운동의 총본영, 해소도 하려다가 못한 근우회, 금후의 길길은 과연 어디인가』, 『조선일보』, 1932년 12월 4일, 7쪽.

4) 『퇴직여기자들의 방담』, 『조선일보』, 1962년 4월 5일, 4쪽.

만, 실질적으로는 근우회가 신간회의 산하단체였다고 보았다. “근우회는 여성의 전국적 유일조직으로서 마땅히 신간회의 산하단체가 되어야 하므로 양자가 대등한 위치의 양두조직은 아니었다”는 것이다.<sup>5)</sup> 즉 근우회와 신간회 간의 연대는 수평적이지 않고 의존적이고 부속적인 성질을 띠었고 ‘자매단체’는 단지 두 단체가 추구하는 지향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나온 수사적인 표현이라는 것이다. 남화숙 역시 근우회를 신간회가 추구하는 전체 사회운동의 부문운동인 여성운동을 담당할 성별 조직으로 파악했다. 그리고 근우회와 신간회가 직접적인 조직적 연대를 하지 못하고 지지와 후원 성격의 인적 연대에 머물렀다고 평가했다.

근우회는 전체 사회운동의 한 부문운동으로서의 여성운동을 담당하는 성별 조직이었다. 그러므로 근우회는 이념상으로는 전체운동의 협동전선을 지향하는 조직체인 신간회 하부의 부문별 조직에 해당하는 위상을 가진다. 그러나 신간회 자체가 협동전선체로 충분한 발전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근우회는 노동, 농민, 청년운동 등과 마찬가지로 신간회와 직접적인 조직적 연결을 갖지 못한 채 인적 연결을 통해서도 보조를 맞추고 상호 후원하는 선에 머물렀다.<sup>6)</sup>

이처럼 김창순·김준엽과 남화숙 모두 근우회와 신간회의 연대를 전체운동과 부문운동 간의 의존적 연대로 이해하고 있다. 남화숙은 그마저 직접적 조직적 연대가 없는 상징적인 연대일 뿐이고 실제로는 느슨한 인적 연대에 그쳤다고 보고 있다.

최근 한동안 침체되었던 근우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근우회는 신간회의 자매단체’라는 프레임이 근우회의 독자성을 부인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장원이는 근우회에 신간회의 자매단체가 아닌 조선여성해방을 목표로 한 통일전선이라는 위상을 부여한다. 근우회가 ‘단순히 신간회 창립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조선여성운동의 역사적 경험과

5) 김창순·김준엽, 『한국공산주의운동사』 3, 청계연구소, 1986, 86쪽.

6) 남화숙, 「1920년대 여성운동에서의 협동전선론과 근우회」, 『한국사론』 25, 1991, 201~202쪽.

이론적 정립을 통해서 생겨난 것'이라고 본다.<sup>7)</sup> 이임하 역시 신간회의 '자매 단체' 혹은 '외곽 지원 단체'라는 표현을 비판하며 근우회가 여성단체로서 갖고 있는 독자성에 주목할 것을 강조한다.<sup>8)</sup> 이는 곧 '근우회는 신간회의 자매 단체'라는 프레임이 두 단체의 관계성, 즉 연대성에 대한 분석없이 의존성을 전제하며 통용되었던 연구 풍토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이처럼 '근우회는 신간회의 자매단체'라는 프레임을 둘러싼 논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이 글에서는 근우회와 신간회의 연대성에 대해 근우회라는 운동 주체의 관점에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먼저 근우회의 연대체로서 면모를 살핀 후 신간회와 근우회는 상호 연대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사회현안에 대해 신간회와 근우회가 어떻게 대응하고 연대했는지를 학생운동을 사례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 2. 근우회의 연대체로서의 면모

근우회와 신간회의 연대성 문제에 앞서 근우회의 연대성을 들여다보자. 신간회는 창립 과정부터 민족유일의 '당'을 지향하는 협동전선운동의 산물로 인식되었다. 협동전선이라 함은 신간회가 연대체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흔히 신간회를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협동전선이라 하는데 이를 달리 말하면 신간회는 양자 간의 연대체이다. 또한 신간회는 서울 본부와 군 단위에 설치한 지회로 조직되는데 본부가 강력한 권한을 갖고 지회를 장악한 것이 아니라 각 지역 사회운동의 형편을 반영하며 지회별로 활동했다. 신간회는 이러한 군 단위의 지회를 기반으로 도별 연합회 결성을 시도했으나 평안남도 신간지회연합회와 함경북도 신간지회연합회만이 설립되어 운영되었고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황해도, 함경남도에서는 경찰의 집회 금지 등에 부딪혀 시도에 그치고 말았다.<sup>9)</sup> 그

7) 장원아, 「근우회와 조선여성해방통일전선」, 『역사문제연구』 42, 2018, 426쪽.

8) 이임하, 『미래는 우리의 것이다』, 철수와영희, 2021, 7쪽.

렇지만 신간회는 군 단위의 지회를 중심으로 지역 간을 잇는 전국적인 연대체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었다. 이와 같은 신간회의 연대체적 성격은 근우회에도 고스란히 적용 가능하다. 근우회는 민족주의계 혹은 기독교계와 사회주의계 여성운동가의 연대체였고, 본부와 함께 지역의 여성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의 형편이 반영된 지회를 가진 전국적 연대체였다.<sup>10)</sup>

근우회와 신간회는 사회운동 세력 간, 지역 간 연대체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당시 위계적인 당적 조직을 갖춘 단체와 비교해보면 곧바로 드러난다. 1923년에 창당한 천도교청년당은 경성에 본부를 두고 군 단위로 지부를 설치했다. 그런데 1926년부터는 본부에 직업별로 농민부, 노동부, 학생부, 연령별로는 청년부, 유년부, 소년부, 성별로는 여성부 등 총 7개 분야의 부문운동 관련 부서를 설치했다.<sup>11)</sup> 천도교가 중앙집권적인 종교조직이었으므로 천도교청년당 본부 역시 강한 결속력으로 지회를 장악하고 있었으며 부문운동을 총괄할 수 있었다. 이와 달리 근우회와 신간회는 사회운동 세력 간의 수평적 연대체였고, 지회 간의 수평적 연대에 기반한 연대체였다. 특히 두 단체의 활동과 해소에 이르기까지 주요 국면에서 지회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던 것은 이와 같은 수평적인 연대성에서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일단 전국적 연대체보다는 운동 세력 간의 연대체로서의 근우회의 면모에 집중해 분석하고자 한다. 신간회의 결성에는 6.10만세운동과 자치론의 대두라는 사건, 민족주의 계열의 타협과 비타협으로의 분화, 그리고 사회주의 세력의 부상과 조선공산당의 활동이라는 사회운동 세력의 지각 변동 등과 같은 풍부한 전사(前史)가 있다. 근우회의 전사는 사회주의 여성운동의 연대에서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26년 12월 화요파·북풍회계의 경성여자청년동맹과의 사회주의 여성운동가들은 경성여자청년동맹을 결성했다. 서울파에 속하는 박원회의 주도로는 경성여자청년회가 창립

9) 신용하, 『신간회의 민족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124~134쪽.

10) 근우회의 전국적 연대체로서의 면모를 살펴보면, 국내외에 모두 69개의 지회가 설치되었다. 함경남북도 19개, 경상남북도 17개, 전라남북도 8개 순이고 나머지 도에는 2~4개의 지회가 설치되었다 (이입하, 앞의 책, 137쪽).

11) 김정인, 『천도교 근대 민족운동 연구』, 한울, 2009, 246쪽.

했다. 두 단체는 1926년 12월에 합동해 중앙여자청년동맹을 결성했다. 그리고 신간회 창립 이틀 전인 1927년 2월 13일 일본에 유학을 다녀온 여성들이 모임을 갖고 미국, 중국 유학을 다녀온 여성들과 유학생 친목회를 만들기로 의기투합했다. 이들이 유학생 친목회를 개최한 것은 두 달 후인 1927년 4월 16일이었다. 이 자리에 모인 여성들은 단순한 친목회를 넘어 여성운동 단체를 만드는데 합의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의 사상은 통일할 수는 없으나 그들은 어떤 큰 전제 아래에서는 우리 사회의 문화 향상을 위하여 진력할”<sup>12)</sup> 협동의 여성운동 단체를 만들기 위해 김순영, 김활란, 박경식, 박원희, 손정규, 유각경, 유영준, 이덕요, 이현경, 차사백, 최은희, 현덕신, 황신덕 등 13명을 준비위원회에 선출했다. 이 중 김활란, 유각경은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여성운동가이자 2월 15일에 열린 창립총회에서 간사로 선출된 신간회 간부이기도 했다.<sup>13)</sup>

1927년 4월 26일 근우회의 발기총회가 개최되었다. 발기인은 40명으로 당대를 대표하는 여성 엘리트들이었다. 이들은 크게 분류하면 사회주의계와 기독교계로 나눌 수 있다. 사회주의 여성운동 단체에서 활동하던 여성운동가로는 강정희, 박원희, 박신우, 유영준, 이덕요, 이현경, 정종명, 정철성, 조원숙, 주세죽, 황신덕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조선여성동우회, 중앙여자청년동맹, 경성여자청년동맹 등의 사회주의 여성운동 단체를 조직해 활동하면서 화요회, 북풍회, 정우회, 일월회, 삼월회 등의 사상운동 단체에서도 활동한 경험을 가진 사회주의자들이었다.<sup>14)</sup> 근우회 창립 준비가 한창이던 1927년 3월 8일 국제무산부인데이를 맞아 조선여성동우회와 중앙여자청년동맹 주최로 기념대강연회가 열렸을 때 연사와 주제를 살펴보면, 당시 가장 활발한 사

12) 공평생, 『여자 외국 유학생의 간친의 모임을 듣고』, 『조선일보』, 1927년 4월 18일, 3쪽.

13) 윤효정에 따르면 김활란, 유각경은 기호지역 기독교 비밀결사였던 흥업구락부의 조직 활동의 하나로써 신간회 간사로 활동한 것이기도 했다(윤효정, 『신간회 운동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7, 65쪽).

14) 최초의 사회주의 여성운동단체인 조선여성동우회는 1924년에 창립되었다. 정철성, 정종명 등이 주도한 조선여성동우회는 ‘사회진화법칙에 의하여 신사회의 건설과 여성해방운동에 나설 일꾼의 양성’과 ‘조선여성해방운동에 참가할 여성의 단결’을 꾀한다는 강령을 내세웠다(김정인, 『근우회 여성운동가들의 교육계몽론』, 『교육철학연구』 41-4, 2019, 70쪽).

회주의 여성운동가들이 근우회 창립에 뛰어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원희: 국제무산부인데이의 유래, 정종명: 국제무산부인데이를 기념하자, 황신덕: 조선부인의 국제화, 박신우: 3월 8일과 조선 여성, 이현경: 국제무산데이를 맞으면서 조선 여성에게, 나순금: 여자해방과 3월 8일, 강정희: 러시아혁명<sup>15)</sup>

기독교계 여성으로는 신간회 간사로 활동하던 김활란, 유각경, 그리고 두 사람과 함께 YWCA에서 활동하던 김선, 김순복, 김영순, 차시백, 조선여자 기독교절제회 회원인 홍애시덕 등이 참여했다.<sup>16)</sup> 한편 여성교육 분야에서 활약하던 여성들도 발기인으로 가담했다. 근화여학교를 경영하던 차미리사, 양현여학교를 경영하던 신알벳트,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교사인 손정규와 임순분, 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 교사인 김순영과 전지자, 태화여자관 교사인 최활란 등이 그들이다.<sup>17)</sup> 그런데 근우회 발기인 상당수는 일본, 미국, 중국에 유학을 다녀온 '지식계급분자'들이었다. 이처럼 유학이라는 공통의 경험이 사회주의계와 기독교계의 연대를 가능케 한 토대가 되었다는 점은 당대의 여성운동을 규정짓는 특질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1927년 4월 26일 근우회 발기인 총회를 거쳐 5월 27일에 창립대회가 열렸다. 이날 중앙집행위원으로는 21명이 선출되었고 이들은 5월 29일에 열린 제1회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각 부서의 임원으로 선출되었다.

서무부: 박경식, 조원숙, 차사백

재정부: 김선, 우봉운, 최은희, 방신영

15) 『국제무산부인데이 기념대강연회』, 『조선일보』, 1927년 3월 5일, 3쪽.

16) 기독교계 여성운동을 대표하는 단체는 1923년에 창립한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연합회(이하, YWCA)였다. YWCA의 창립 주역은 김필례, 유각경, 김활란 등 3인이었고 창립 당시 임원으로는 회장에 유각경, 부회장에 김필례, 서기에 신의경 등이 선출되었다. 이들은 모두 기독교계 학교를 나온 여성들로 대학과정을 미국 일본 중국 등지에서 유학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YWCA는 창립한 지 3,4년 만에 각 지역 여자기독교청년회와 기독교계 여학교를 주축으로 30여 개의 지부를 거느린 전국적 여성단체로 자리매김했다(김정인, 앞의 글, 70쪽).

17) 이입화, 앞의 책, 28~31쪽.



선전조직부: 박신우, 유각경, 정철성, 정종명

교양부: 황신덕, 김동준, 김영순, 박원희

조사부: 김활란, 홍애시덕, 이현경

정치연구부: 유영준, 이덕요, 현덕신<sup>18)</sup>

이들 21명 가운데 김선, 김영순, 김활란, 방신영, 유각경, 차사백, 현덕신, 홍애시덕 등이 기독교계였다. 박신우, 박원희, 우봉운, 유영준, 이덕요, 이현경, 정종명, 정철성, 조원숙, 황신덕 등 10명이 사회주의계였다. 상무집행위원으로는 김선, 김활란, 박경식, 박신우, 유영준, 조원숙, 황신덕 등 7명이 선출되었다.

신간회에서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이 사회주의 계열과 협동했지만, 근우회에서는 기독교계, 기독교인이면서 교육계에서 활동하는 여성운동가들이 사회주의 계열 여성운동가와 연대했다. 여성운동에서 기독교계의 부상은 서양 선교사들이 19세기 이래 초등부터 고등까지 여성교육을 주도하면서 그들이 길러낸 신여성들의 세력화에 기반한 것이었다. 그런데 근우회 역시 당대에도 그러했듯이 신간회처럼 민족주의계와 사회주의계의 연대의 산물이라고 부르는데 큰 문제는 없다. 다만 그러할 경우 당시 민족주의계 여성운동에서 기독교계가 압도했고 그들이 대부분 유학생 출신이었고, 이러한 유학이라는 공통 경험이 사회주의계 여성운동과의 연대에 토대가 되었다는 당대 여성운동의 특질이 잘 드러나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기독교계라는 용어로 그들을 분류하고자 한다.<sup>19)</sup>

이처럼 근우회는 기독교계와 사회주의계의 연대에 기반해 탄생했다. 이러한 사회주의계와 기독교계의 연대체로서의 근우회의 탄생 과정에 대해 황신덕은 『조선일보』, 1928년 1월 1일 자를 통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18) 「근우회위원회」, 『조선일보』, 1927년 5월 31일, 5쪽.

19) 경찰 당국은 중앙여자청년동맹 간부인 황신덕, 박원희, 정종명, 조원숙, 이현경, 박신우 등이 ‘기독교계, 기타 민족주의적 색채가 농후한’ 유영준, 김활란, 유각경 등과 협의해 근우회를 만들었다고 파악하고 있었다(경기도경찰부, 『치안개황 1929년 5월』, 31~32쪽). 그런데 여기서는 이미 일월회 활동을 하고 있던 유영준가 민족주의계로 잘못 분류되어 있다.

1926년 가을부터 전조선적으로 일어난 파생주의 배척, 통일운동 촉진의 목소리는 누구에게보다도 먼저 여성운동자의 가슴에 깊이 들어박힌 것이다. 과거의 파쟁 분열이 여성운동에 한하여서는 더구나 애매하였다는 것을 자각할 때에 우리는 큰 소리쳐서 어리석던 과거를 웃으며 슬선하여 합동에 착수하였으니 그것이 곧 세상에서 이미 이는바 1926년 12월 서울계의 경성여자청년회와 정우계의 경성여자청년동맹의 합동이다. 여성운동 선구단체의 합동통일은 필경에 어떤 큰 에네르기를 발생하리라 많은 기대를 갖고서 1927년을 맞았다. 우리의 기대는 망상이 아니었다. 과거에 있어서는 여성운동에 전연 무지각하고 무기력하던 종교계의 여성들에게까지 통일의 기분이 넘쳐흐르게 되었다. 북방인국인 중국에서 물려오는 사조에 자극을 받고 전민족의 요구에 응하여 민족적 단일정당이 바야흐로 축성되고 있을 때 그들은 정히 각성하여 분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여자가 조선인으로서 남자와 동일선상에 서서 활약하기에는 아직까지도 일반적으로 보아 여자 자체의 훈련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여자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회적 조건은 어떠한 시기까지 여자만으로서의 단결을 요구한다고 아니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과거의 반목질시하던 민족주의의 여성들과 사회주의 여성들과의 뜨거운 악수가 4월 15일 [4월 16일-필자] 조선일보사 2층에 개최되었던 외국여자유학생친목회에서 구체적으로 성립되고 동 5월 27일 각 계급의 여성을 망라하여 여자의 지위향상을 목표로한 여성단일단체 근우회가 창립되었다.<sup>20)</sup>

이처럼 황신덕은 근우회 출범의 배경으로 두 가지를 짚고 있다. 먼저 정세상의 배경으로 1926년의 사회주의계 여성운동의 합동에 이어 '민족적 단일정당'인 신간회 결성 분위기 속에 종교계 여성들이 협동전선에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민족주의계와 사회주의계 여성들이 유학생친목회 모임을 계기로 근우회가 탄생했다고 보았다. 또한, 여성운동의 객관적 조건으로 여성이 남성과 동일선상에서 활약하기에는 여성 자체의 훈련이 부족하고 사회적 조건이 여성만의 단결을 요구하기에 근우회가 출범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인

20) 황신덕, 「1927년 여성운동의 회고(1)」, 『조선일보』, 1928년 1월 1일, 17쪽.

식을 통해 그가 해방 이후 근우회를 신간회의 자매기관이라고 언급할 때 그것이 수평적 연대가 아니라 의존적 연대를 뜻한 것임을 엿볼 수 있다.

한편, 『동아일보』, 1928년 1월 1일 자에는 근우회에서 활동하는 여성운동가들의 신년 각오가 실렸다. 먼저 사회주의계의 입장을 살펴보면 유영준은 “우리는 일 년 동안 협동하여 악전고투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사업도 하여 왔습니다. 금후로도 우리는 더욱더욱 용기와 열심을 내어서 우리의 협동전선을 유력하게 하여 전 조선이 천만 자매의 해방을 위하여 싸워야 할 줄 압니다.”<sup>21)</sup>라며 근우회가 협동전선의 일환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정칠성은 “근우회는 현계단에 있어서 전조선 모든 여성을 통일조직한 기관이니 이 기관을 어디까지든지 유력하게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유감되는 일은 지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통일되지 못한 것입니다.”라며 근우회 지도자들이 통일적 태도를 취하지 못한 것을 비판했다. 그리고 “근우회가 창립된 지 1년 미만에 벌써 이만한 발전이 있었으니 이후로 우리가 좀 더 통일된 노력을 가하면 큰 성공이 있을 것입니다.”<sup>22)</sup>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정중명은 직접적으로 기독교계 여성을 향해 통일전선에 대한 정열이 매우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협동을 위해 자신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 경험상 절실히 느끼는 것은 우리 자신의 통일이 불충분한 것입니다. 사회주의 여성 자체의 사이에는 완전한 통일이 없는 것은 물론이지만 소위 협동전선에 있어서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 간의 통일도 아직 불충분합니다. 더구나 예수교 여성들은 통일전선에 대하여 정열이 몹시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협동전선에 있어서는 교인이면 교인, 사회주의자면 사회주의자 등 각 개인의 특수점은 각 개인의 문제로 부치고 같이 할 일에 대하여서는 모두가 최대의 노력을 바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일 줄 압니다. 신년부터는 이 점에 대하여 각각 모두 주의하고 또 서로 서로 격려하여 우리의 운동을 더욱 유력하게 하여야 할 줄 압니다.<sup>23)</sup>

21) 「선구여성들의 신년 신기염」, 『동아일보』, 1928년 1월 1일, 24쪽.

22) 위와 같음.

황신덕은 여성운동에 ‘단체적 훈련이 부족’해 단체 투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인과 단체를 구별하지 못하고 또는 다수 결의에 복종하는 습관과 의지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정희는 ‘모든 여성 중 오직 우리 무산 여성만이 최후까지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천명하고 ‘당면 운동에 있어서는 무산 여성 이외의 여성들과 협동하여 근우회를 유력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와 같은 협동은 언제 어떤 조건으로 어찌될런지 모릅니다’라며 근우회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조원숙도 협동 전선으로서의 근우회에 갈등이 없을 수 없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다는 비판적인 평가를 내렸다.<sup>24)</sup>

그런데 같은 지면에서 기독교계 근우회 간부인 김활란은 현대교육이 개성을 무시한다며 1928년에는 개성있는 교육이 이뤄지길 염원했고 김영순은 여학생에는 성적인 문제가 가장 큰 장애물인 바 연애결혼을 위해 독립적 인격을 가져야 함을 주장했다. 그들 모두 근우회와 관련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sup>25)</sup> 하지만 근우회가 창립하고 두 달 후인 7월에 미국의 태평양문제연구회에서 개최하는 회의에 참석한 김활란은 신간회와 근우회에 대해 “사회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 기독교인들과 유학자들, 불교도와 천도교인들이 공동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그들의 경험과 정신적, 물질적 자원을 함께 모으고 있”는 단체로 소개했다.<sup>26)</sup> 나아가 ‘조선에서 사회가 차차 통일되기 시작하면서 신간회와 근우회 같은 민족적 단일당’<sup>27)</sup>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근우회를 신간회와 같은 민족단일당이라고 매우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 주목된다. 하지만 김활란은 그로부터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1928년을 맞아 신년 각오를 묻는 질문에 교육계몽만을 언급할 뿐 근우회에 대한 발언은 삼갔다.

사회주의계와 기독교계 간의 갈등이 불거진 것은 1928년 7월 14일에 제1

23) 위와 같음.

24) 위와 같음

25) 위와 같음

26) 윤효정, 앞의 논문, 68쪽.

27) 『조선민족은 평화의 민! 4천년 문화를 장하여』, 『조선일보』, 1927년 8월 22일, 2쪽.

회 전국 대표자 대회를 대신해서 열린 임시 전국대회가 끝난 직후였다. 이 임시 전국대회에서 중앙집행위원장과 23명의 집행위원이 선출되었다. 중앙 집행위원장에는 선거로 정종명이 선출되었다. 7월 23일에는 중앙 상무위원회가 조직되었는데 서무부에 박호진·차사백, 재무부에 이현경·황찬희, 정치문화부에 황신덕·김영희, 선전조직부에 허정숙·한신광, 조사부에 심은숙·강정희, 출판부에 정철성·양봉순이 배치되었다. 근우회 중앙의 주요 보직을 기독교계 여성운동가로서 창립부터 관여한 차사백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회주의자들이 차지했던 것이다.

이 임시 전국대회 이후 기독교계를 이끌던 김활란, 김영순, 홍애시덕, 최활란 등이 근우회를 탈퇴했다. 근우회 활동에 다소 비판적이던 사회주의자 조원숙은 1928년 4월 제1회 전국대회 준비위원을 끝으로, 강정희는 1928년 7월 제1회 임시 전국대회 집행위원을 끝으로 근우회 간부로 활동하지 않았다.

1928년 기독교계 간부의 근우회 탈퇴에 대해 1932년 근우회의 해소에 대한 분석기사를 실은 조선일보는 구식의 여성운동을 답습하는 기독교계와 계급적 입장을 강조하는 사회주의계가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결국 기독교계가 이탈한 것으로 보았다.

일단은 근우회가 결성됨에 가두로! 가두로! 조선 여성의 새로운 진출은 물밑듯 하였다. 암흑에서 광명으로 조선 여성들의 새길을 밟고서 애쓰는 내재적 힘의 발로였다. 그러나 이만한 진보적인 조직 내에서도 그 사상적 분야와 운동의 이론은 범박하였다. 한편에는 구식의 여권운동의 테를 벗지 못한 점이 있는 일방에 그보다는 훨씬 방향을 달리하여 계급적 입장에서 여성운동의 이론을 세우는 이도 있었다. 그리하여 같은 운동선상에도 은연중 색채를 달리하는 점이 있는 듯하였다. 그 결과는 1928년의 전국대회 그것이 웅변으로 증명하였다. 이같은 과정을 밟아 나아가는 동안에 집회가 뜻같이 못되고 또 한편으로 간부의 검거도 있어 운동이 쇠침하여 가기만 하고 있어 그 향할 바가 어디인지 염려되는 바가 많았다.<sup>28)</sup>

28) 『여성운동의 총본영, 해소도 하려다가 못한 근우회, 금후의 길길은 과연 어디인가』, 『조선일보』, 1932년 12월 4일, 7쪽.

그런데 기독교계 간부의 근우회 탈퇴는 사회주의계와의 갈등 때문만이 아니라 기독교계 사회운동의 방향 전환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1928년 YWCA, YMCA, 장로교, 감리교,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 등이 연합해 농촌사업협동위원회를 설치했다. YWCA도 황에스터와 홍은경을 위원으로 하는 농촌부를 설치했고 총무인 김활란이 농촌사업협동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었다.<sup>29)</sup> 김활란과 황에스터가 주축이 되었던 YWCA의 농촌여성계몽운동을 상징하는 인물은 심훈의 소설 『상록수』의 주인공 채영신의 실존 인물로 알려진 최용신이다.

이처럼 기독교계의 주요 여성운동가들이 탈퇴하면서 근우회의 연대체로서의 면모는 약화되었고 사회주의 계열의 주도성이 한층 강화되었다. 하지만 근우회가 사실상 '해소'될 때까지 근우회 본부에서 꾸준히 활동한 기독교계 여성운동가들이 있었다. 창립 당시부터 활동했던 유각경은 1929년 7월 전국대회 준비위원으로까지 활동했고 김선은 1930년에도 중앙확대집행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가장 주목할 인물은 근우회 평양지회장이었던 조신성이다. 조신성은 1928년 임시 전국대회에서 집행위원에 선출되면서 본부 임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했고 1930년에는 중앙집행위원장에 선출되었다. 이때 기독교계 여성운동가인 손메례, 황에덕도 처음으로 중앙집행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조신성은 1931년부터 근우회 해소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기독교계가 주도하는 근우회 평양지회 지회장으로서 적극적인 반대에 나섰다.<sup>30)</sup> 이처럼 1928년 임시 전국대회를 계기로 근우회에서 사회주의계와 기독교계의 연대성이 약화되기는 했지만, 유각경, 김선 등의 지속적인 활동과 근우회 내에서의 조신성의 입지 강화를 통해 연대의 면모를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

이처럼 근우회가 사회주의계와 기독교계의 연대체라는 면모를 유지하는 가운데 앞서 김활란이 언급했듯이 조선불교여자청년회 회장 출신으로 사회주의자였던 우봉운, 천도교여자청년동맹원이면서 사회주의자인 박호진 등이

29) 김정인, 앞의 글(2019), 70쪽.

30) 장원아, 앞의 글, 414~418쪽; 박상준, 『1920-30년대 평양 지역 여성운동의 전개와 성격-평양여자기독교청년회와 근우회 평양지회를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1, 2020, 191쪽.

근우회 간부로 참여하는 등 그 연대의 범주가 기독교계와 사회주의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3. 근우회와 신간회의 상호 연대 인식

그렇다면 근우회와 신간회는 상호 연대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 근우회의 창립준비위원회가 창립대회에서 논의하기 위해 준비한 안건에는 ‘신간회 지지 및 입회 촉진에 관한 건’이 있었다.<sup>31)</sup> 근우회가 출발부터 신간회를 지지한다는 수준의 연대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창립대회에서는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1928년 새해 벽두에 황신덕은 근우회가 창립 이후 신간회에 대한 연대에 소극적이었고 심지어 연대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경향이 근우회 안에 있었다고 비판했다.

1927년 여성운동의 앞에는 수많은 당면문제가 전개되었다. 근우회 창립 당시에도 문제가 되었던 바이지만은 조선의 여성운동이 정치 운동과 전연 분립하여 가지 고서도 존재의 의의를 발견할 수 없느니만큼 신간회 그것이 단일정당으로서 완성이 되었든지 못 되었든지를 막론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지 아니치 못하게 된다. 그러나 여성 운동단체의 선구적 책임을 지고 있는 근우회는 자발적으로 신간회에 대한 태도를 성명(聲明)하지 아니하였다. 아니 그 필요까지를 부인하는 정도에 있다가 최근 신간회의 근우회 지지에 의하여 비로소 피동적 관계를 가지고 있게 되었다. 이는 확실히 자체에 대한 인식이 명확치 못한 중에서 생기는 타단체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모르는 소이일 것이다.<sup>32)</sup>

이 글에서 나타나듯이 1927년 말부터 신간회 지회들이 각종 집회를 통해 근우회 지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행동에 나섰다. ‘지지 선언’은 낮은 수준

31) 「근우회 창립총회」, 『조선일보』, 1927년 5월 25일, 3쪽.

32) 황신덕, 「1927년 여성운동의 회고(2)」, 『조선일보』, 1928년 1월 2일, 5쪽.

의 연대 방식이지만, 상호 연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가령, 1927년 12월 3일 신간회 함흥지회<sup>33)</sup> 정기대회에서는 당면문제로서 근우회 지지에 관한 건을 다루었다. 12월 22일에는 신간회 순창지회 발기회에서 근우회 지지를 선언했다.<sup>34)</sup> 12월 29일에는 신간회 진남포지회 간사회에서 근우회 지지를 선언하는 동시에 지회를 설치하도록 지원할 것을 결의했다.<sup>35)</sup> 그런데 이러한 신간회 지회의 ‘근우회 지지’는 청년, 학생, 소년, 노동, 농민운동 단체에 대한 지지와 함께 표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즉 신간회라는 ‘민족유일당’의 부문운동의 하나로 근우회를 인식하고 지지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신간회 안주지회는 다음과 같은 부문 운동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근우회 지지를 천명했다.

· 청년운동에 관한 건: 적극 원조하며 조선청년총동맹을 지지할 것 · 농촌문제에 관한 건: 농민의 생활상태를 조사 연구하며 조선농민총동맹을 지지할 일 · 노동문제에 관한 건: 노동자의 실생활을 조사하며 조선노동총동맹을 지지할 일 · 여성문제에 관한 건: 여성운동을 촉진하며 근우회를 지지할 일 · 형평운동에 관한 건: 적극 원조할 일 · 소년운동에 관한 건: 적극 원조하는 일 · 재만동포옹호동맹에 관한 건<sup>36)</sup>

이는 신간회 창립 당시 부회장이었던 홍명희가 근우회에 대해 “우리 민족운동의 이론이 세계무산 계급 운동의 일부분인 것과 같이 우리 여성운동의 이론이 조선 민족운동의 일부분이 될 것”<sup>37)</sup>이라고 인식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이었다.

이러한 신간회 지회들의 근우회 지지 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1928년 1월 2일 자 조선일보 사설은 신간회의 당면문제로서 근우회와 한층 ‘유기적인 합

33) 『함흥지회 정기대회』, 『조선일보』, 1927년 12월 7일, 4쪽.

34) 『신간회 소식』, 『동아일보』, 1927년 12월 25일, 4쪽.

35) 『남포지회 간사회』, 『동아일보』, 1928년 1월 3일, 3쪽.

36) 『안주신간정기대회』, 『중의일보』, 1927년 12월 25일, 4쪽.

37) 홍명희, 『근우회에 희망- 홍명희씨 답』, 『동아일보』, 1927년 5월 29일, 5쪽.



작'을 이를 필요성을 강조했다.

작년 중에 있어서 조선의 운동선상 특필할 것이 민족단일당의 창립인 것은 또 거둬 말하지 않는다. 즉 신간회와 근우회의 창립이 그것이다. 전자가 성적 차별까지 통합하여서 전민족적유일전선을 수립하고자 함이요 후자가 특히 그 사회적 위치 및 사정을 달리하는 여성분위에 입각한 단일당의 형태로 된 것인 것에 돌아보아 그 특수한 동작의 방책이 스스로 동일하지 아니한 바 있겠지만 조선의 일반적인 전운동의 방향 및 정책에 있어서 물론 합치 및 쌍행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부분 부분으로 분산되었던 운동이 전선적 협동전선으로 집중결성하는 최후적인 도정에 있어서 양자가 더욱 유기적인 합작을 하여야 하려니와 양자 자체가 또 각각 부분적인 제기관에 향하여 일층 유기적인 연락을 형성할 필요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sup>38)</sup>

당시 조선일보 주필이 신간회 창립의 주역인 안재홍이었던 점에 고려할 때, 신간회가 근우회와 유기적인 합작을 이루어야 한다는 조선일보 사설에는 신간회 일부 간부들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이 사설에 따르면 신간회에게 근우회는 주요 연대 대상인 '여성 단일당'이었다. 그런데 같은 시기 조선일보에 신간회에 대한 논설을 발표한 사회주의자인 김만규는 1928년 1월에 조선노동총동맹, 조선농민총동맹, 조선청년총동맹, 근우회, 천도교, 기독교, 유교, 불교 등을 협동전선의 영입 대상으로 꼽으면서 이들을 단체로 신간회에 가입시킬 것을 제안했다. 신간회에 단체로 가입해 각 단체가 신간회 각 부서로 편제되도록 하자는 것이다.<sup>39)</sup> 즉 신간회가 부문운동과 연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천도교청년당처럼 부문운동을 장악하고 이끄는 주도권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근우회는 신간회의 여성부로 편입되는 것이었다. 1928년 3월에 다시 조선일보에는 신간회

38) 『금년 당면문제』, 『조선일보』, 1928년 1월 2일, 1쪽.

39) 김만규, 『전민족적단일당의 조직과 그 임무에 대하여』(1)-(3), 『조선일보』, 1928년 1월 1일, 1월 22일, 1월 23일, 1쪽.

가 추진해야 할 당면과제 6개 항이 실리는데, 여기에는 근우회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다. 다만 “협동운동을 지지하고 지도한다”는 항목이 들어있다.<sup>40)</sup> 이는 민족유일당으로서의 신간회가 여성협동운동체인 근우회를 지지한다는 연대의식을 표현하는 동시에 양자 간의 연대는 주도와 의존의 관계로서 신간회가 지도하는 입장을 취하고자 함을 의미한다. 물론 이 방침은 여성운동을 포함한 부문운동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신간회는 민족단일당 혹은 민족유일당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해 사회운동, 즉 ‘부문 운동’과 어떤 성질의 연대를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그 내부에는 여러 견해들이 공존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근우회는 1928년 5월 26일에서 27일 이틀 동안 경성에서 제1회 전국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찰 당국이 사전에 안전을 받아보고는 불온하다는 이유로 대회 준비를 중지시켰다. 이때 경찰이 입수한 안전에 신간회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신간회는 조선민족운동의 현계단에 적응하는 각계각층의 협동전선당이다. 거기에는 노동자도 농민도 수공업자도 인텔리겐차도 자본가도 참가한다. 우리들 여성은 각각 그 속하는 계층에 의하여 참가한다. 신간회는 각계각층의 동맹이므로 각계각층의 적극적 참가, 활동 없이는 그 역할을 다할 수 없다.<sup>41)</sup>

여기서 근우회는 신간회가 협동전선당, 각계각층의 동맹 즉 민족유일당이므로 근우회는 여성이라는 계층을 대표해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근우회는 신간회와 ‘직접 관계’를 급히 맺을 것을 주장하면서 세 가지의 제안을 했다. 첫째, 신간회 안에 여자부를 설치하고 둘째 근우회원 전부가 신간회원이 되며 셋째 근우회가 단체로서도 신간회에 가입하고자 한다는 것이었다. 단 단체 가입에는 근우회의 독립성을 상실하지 않고 신간회에 대

40) 『실제운동의 당면과제(2)』, 『조선일보』, 1928년 3월 28일, 1쪽.

41) 김청순·김준엽, 앞의 책, 82쪽.

해 비판할 자유를 확보한다는 조건이 따랐다.

동일한 목표 아래 단순히 약간의 사회적 조건의 상이 때문에 분할 조직된 근우회는 신간회와 직접관계를 급속히 맺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은 관계를 확립,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인 전체가 투쟁의 유력한 요소로서 활동하는 데에 중대한 의의가 있다. 신간회 안에 여자부 설치를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우회 회원 전부가 신간회원이 되어야 한다. 근우회는 조선 여성의 최고기관으로서 신간회에 단체적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근우회가 단체적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① 근우회의 독립성을 상실하지 않을 것 ② 비판의 자유를 가질 것<sup>42)</sup>

이처럼 근우회는 1928년 협동전선당인 신간회의 부문운동체로서 신간회의 주도성을 수용하지만 여성운동단체로서의 독자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즉 ‘의존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수평적인 면모를 상실하지 않은 연대’를 상징하고 있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신간회 지회들이 근우회 지지를 선언하며 연대 인식을 표출했듯이 근우회 지회들도 신간회 지지를 표명하며 연대 인식을 드러냈다. 1928년 4월 20일 근우회 웅기지회는 창립대회에서는 신간회 지지를 결의했다.<sup>43)</sup> 1928년 7월 15일 임시 전국대회 2일째에 근우회 신의주지회가 신간회 지지안을 제출했다. 또한 지회 차원에서 신간회와 근우회가 공동 행동이라는 적극적인 연대 활동을 벌인 사례가 발견된다. 근우회 목포지회는 1928년 1월 8일 개최한 첫 집행위원회에서 신간회 목포지회가 제안한 연합회원회 개최를 수락하고 참석할 대표위원들을 선출했다.<sup>44)</sup> 해주지회는 1929년 2월 25일 신간회 해주지회와 함께 미신타과 강연회를 개최했다.<sup>45)</sup>

한편 근우회 간부로서 신간회에서 간부로 활동한 이로는 김활란, 유각경,

42) 위의 책, 82쪽.

43) 「근우회 웅기지회」, 『동아일보』, 1928년 4월 24일, 3쪽.

44) 「목포근우지회위원회」, 『동아일보』, 1928년 1월 11일, 3쪽.

45) 「미신타과강연 해주에서 성황」, 『동아일보』, 1929년 3월 3일, 4쪽.

정종명이 있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김활란과 유각경은 창립 당시 간사로 활동했다. 정종명은 1928년 7월부터 신간회 중앙집행위원으로 활약했다. 신간회 지회에서 활동한 근우회 간부를 살펴보면, 근우회 경성지회 간부들은 대부분 신간회 경성지회에서 활동했다. 1927년 6월 10일에 개최된 신간회 경성지회 설립대회에서는 조원숙, 정철성, 황신덕이 간사에 선출되었다. 정철성은 선전부 상무간사에 선출되었다.<sup>46)</sup> 1927년 12월 10일부터 이틀간 열린 신간회 경성지회 제2회 정기대회에서는 박원희, 정철성, 황신덕이 대표회원에 선출되었다.<sup>47)</sup> 심은숙과 정철성은 간사에 선출되었다. 1929년 1월에 열린 신간회 경성지회 제3회 임시대회에서는 박호진, 정종명, 정철성, 허정숙이 대표회원이자 간사로 선출되었다. 손메레는 간사에 선출되었다. 신간회 평양지회에서는 근우회 평양지회장인 조신성이 1929년과 1930년에 집행위원으로 활약했다.<sup>48)</sup> 근우회 중앙집행위원을 역임한 백덕수는 신간회 평양지회 창립 당시 정치문화부 간사로 활동했고 1929년에는 집행위원에 선출되었다.<sup>49)</sup> 근우회 대구지회장으로서 중앙집행위원으로도 활약했던 사회주의자 이춘수는 1929년부터 신간회 대구지회에서 간부로 활동했는데 1930년에는 신간회 대구지회 교육부장에 선출되었다.<sup>50)</sup> 그런데 근우회와 신간회에서 동시에 활동한 여성운동가들이 알려진 이들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처럼 근우회와 신간회의 연대가 실천 면에서는 지지 선언이라는 느슨한 연대가 주를 이뤘지만, 인적 연대만은 꾸준히 있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46) 「신간회경성지회 성황리 발회」, 『조선일보』, 1927년 6월 12일, 2쪽; 「신간회경성지회 간부부서 작성」, 『조선일보』, 1927년 6월 18일, 2쪽.

47) 「신간회경성지회대회」, 『조선일보』, 1927년 12월 12일, 2쪽.

48) 이균영, 『신간회 연구』, 역사비평사, 1993, 629쪽.

49) 위의 책, 628~629쪽.

50) 위의 책, 601쪽.

#### 4. 학생운동 지원을 통해 본 연대 양상

근우회와 신간회는 양자 간의 ‘유기적 합작’, 즉 조직적 연대를 시도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회현안에 대한 공동대응기구에서 함께 임원으로 활약하는 연대 활동은 펼쳤다. 근우회와 신간회 모두 각종 사회현안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당국에 대해 해결을 압박하는 일상활동을 전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령, 1927년 10월 13일에 개최예정이었던 언론집회폭압탄핵대연설회의 연사로 신간회에서는 본부와 경성지회 임원 다수가, 근우회에서는 황신덕이 참여할 예정이었다. 그해 12월에는 재만동포옹호동맹이라는 연대투쟁기구가 조직되었는데 신간회에서는 본부, 경성지회만이 아니라 주을지회, 경성(鏡城)지회 간부들이 임원으로 참여했다. 근우회에서는 유영준과 유각경이 임원으로 참여했다.

무엇보다 근우회와 신간회는 사회 현안 중에 학생부 설치를 시도하는 등 학생운동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1927년 신간회와 근우회가 잇달아 창립할 무렵 전국 곳곳에서 동맹휴학이 점차 확산되는 가운데 학생운동이 주요한 사회운동의 하나로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었다. 신간회에는 창립 당시 서무부, 재무부, 출판부, 정치문화부, 조사연구부, 조직부, 선전부를 두고 특별부로 학생부를 두고자 했다. 목적은 안재홍에 따르면 신간회가 정치운동과 함께 “교화 및 도덕적 훈련 등을 할 필요가 있어서”였다.<sup>51)</sup> 하지만 본래의 의도는 당시 노동총동맹과 농민총동맹, 청년총동맹과 같은 노동, 농민, 청년운동에서는 중앙조직체가 있지만 학생운동에는 부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함이었다. 당시 학생운동은 조선학생회와 사회주의 계열의 조선학생과학연구회가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두 단체는 신간회 초대 회장인 이상재의 1927년 4월 7일 사회장에 임시 학생부를 구성하고 장의행렬에 참가할 학생대를 모집했다. 그리고 장례식 당일 남학생은 교복과 교모, 여학생은 흰색 상의에 검은색 하의를 착용할 것 등의 학생 참가절차를 공지했다. 이후 학생

51) 경성총로경찰서장, 「경종경교비1812호 신간회 발기인회에 관한 건」, 1927년 2월 13일(김성민, 『1929년 광주학생운동』, 역사공간, 2013, 271쪽에서 재인용).

운동 단체들은 전조선 학생통일기관 축성회가 발기되는 등 연대체 결성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갔다.<sup>52)</sup>

신간회는 학생부장에 이관용을 임명했으나 조선총독부의 금지로 실제로 학생부를 설치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재동경 신흥과학연구회에서는 기관지 『신흥과학』 제1호에 학생운동의 방향전환을 선언하는 글을 실어 신간회 학생부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sup>53)</sup> 또한 이관용은 학생부 총무간사의 직책으로 활동했다. 1928년 조사연구부 총무간사인 안재홍이 신문지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그 후임으로 이관용이 임명되면서 학생부 총무간사에 동경지회장인 조현영이 임명되었다. 하지만 조선총독부는 학생부 자체를 금지했으니 임원 개선은 있을 수 없다며 해임을 종용했다.

근우회 역시 창립 당시부터 학생부를 설치하고 학생부 규정을 제정했다. 학생부에는 고등과와 전문과의 여학생들이 가입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학생부 내에 총회와 간사회를 두었고 간사회 산하에 다시 서무부, 재무부, 운동부, 지육부를 두도록 했다.<sup>54)</sup> 앞서 언급한 1928년의 전국대회 안건에서 근우회는 조직사업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 노동부인 대중이지만 동시에 학생문제를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봉건유제의 가정 압박, 사회적 압박, 교육제도의 불만 등은 그들로 하여금 필연적으로 불행을 갖게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sup>55)</sup> 이 안건에서 근우회는 학생운동에서의 구호로 ① 학생자치권의 획득 ② 교육제도의 개혁 ③출입, 면회, 단체 가입의 자유 ④ 교회와 학교의 분리 ⑤ 교원의 실력 본위적 채용, 설비 충실<sup>56)</sup> 등을 내세웠다.

신간회가 활동 중이고 근우회가 창립되기 이틀 전인 1927년 5월 25일 경성의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에서 동맹휴학이 일어났다. 사회적으로 큰 관심

52) 장규식, 『1920년대 학생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58쪽.

53) 위의 책, 103쪽.

54) 경성중로경찰서장, 『경성경고비6935호 근우회집행위원회의 건, 1927년 6월 20일(김성민, 앞의 책, 274쪽에서 재인용).』

55) 김청순·김준엽, 앞의 책, 83쪽.

56) 위의 책, 84쪽.: 이 안건에서 ‘교회와 학교의 분리’는 사회주의계 여성운동가들이 주장하고 기독교계 여성운동가들이 반발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928년 7월 임시 전국대회 이후 기독교계 여성운동가들이 근우회를 탈퇴하게 되는 배경과도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사를 불러일으켰던 이 맹휴는 학생들이 사임을 요구한 일본인 교사 사이토가 사표를 제출하고 9월 5일부터 학생 전부가 등교하고 무기정학 징계도 철회하면서 세 달 만에 일단락되었다.<sup>57)</sup>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게 된 것은 학부형회의 활약 덕분이었다. 맹휴가 일어나자 학부형들은 곧바로 ‘맹휴의 원인은 사이토가 교무주임으로 부임한 이래 민족적 편견을 가지고 학생들을 대하는 것은 물론 장차 조선 가정의 주부가 될 사람들에게 모든 교육을 일본화시키고 심지어 일본인과 결혼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는 등 조선인이 수용하기에는 부적당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데 있다’며 학교측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sup>58)</sup> 그리고 5월 28일 오후 2시 300여 명의 학부형이 자발적으로 모인 가운데 학부형회의를 개최하고 임시의장에 유일선, 서기에 서범석을 임명하고 전횡위원으로 박준중, 안재홍, 전백, 김병로, 임재덕, 장도, 박기정, 명이향, 최은희 등을 선정했다. 교섭위원으로는 안재홍, 서범석, 전백, 김병로, 최은희 등 5명을 선정했다. 즉 학부형회에서 선정한 위원에는 조선일보 주필로서 신간회 창립 임원인 안재홍과 근우회의 창립 임원인 최은희가 있었다. 즉 126일 만에 일단락된 숙명여고보의 맹휴에서 신간회 조사연구부 총무간사인 안재홍과 근우회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최은희는 학부형회를 이끌며 맹휴 문제를 사회문제화하고 결국 학생들의 요구가 관철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달리 말하면 근우회와 신간회의 핵심 간부 두 사람이 학부형회라는 공동대응기구를 이끌며 숙명여고보 맹휴를 쟁점적인 사회문제로 예각화해 여론을 환기시키면서 결국 승리를 얻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근우회는 6월 10일 임시집행위원회를 열어 숙명여고보 맹휴사건에 대해 ‘조선교육계의 일대 불상사인 동시에 일반사회의 여론이 비등한 만큼 진상 파악이 필요하다’며 황신덕, 현덕신, 김선, 심은숙을 조사위원으로 선정했다.<sup>59)</sup> 그리고 이 조사를 토대로 1927년 7월 1일 근우회 정기 집행위원회에

57) 강혜경, 『숙명여고보 맹휴사건으로 본 식민지 여성교육』,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7, 2010, 292~293쪽; 김정인, 『일제강점기 경성의 여학생 운동』, 『일제강점기 경성지역 여학생의 운동과 생활』, 서울역사편찬원, 2020, 38~46쪽.

58) 『숙명여고보 맹휴 사건』, 『조선일보』, 1927년 5월 28일, 2쪽.

서는 토론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려 했으나 임석 경관의 제지로 무산되고 말았다. 신간회는 경성지회가 먼저 숙명여고보 맹휴를 조사할 조사원을 파견했다.<sup>60)</sup> 숙명여고보를 비롯해 곳곳에서 맹휴가 이어지자 이번에는 신간회 본부가 직접 나서 7월 20일에는 권태석, 김준연, 송내호, 안재홍, 이관구, 이관용, 이욱, 한위건, 홍명희 등 9명을 조사위원으로 임명해 실태 파악에 나섰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기반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맹휴가 일어난 학교의 당국에 통고문을 발송한다는 방침을 세웠다.<sup>61)</sup> 신간회 경성지회는 8월 17일에는 숙명여고보 맹휴와 함께 보성고등보통학교 맹휴에 대해 비판 연설회를 개최하고자 했으나 종로경찰서의 불허로 열리지 못했다.<sup>62)</sup>

이처럼 신간회와 근우회가 창립된 해에 두 단체의 핵심 간부가 직접 나서 학부형회를 이끌고 학생 편에서 함께 투쟁한 경험은 맹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을 것이다. 하지만 황신덕은 숙명여고보 맹휴를 기반으로 근우회가 일정한 여학생의 연대를 만들어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 비판했다.

경찰간섭으로 언론의 자유가 없었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지마는 숙명여고맹휴같이 지구전을 계속하는 동안은 넉넉히 여자 교육 문제에 대하여 XX적으로 일반사회의 여론을 환기할 수 있었을 것이요, 여학생을 중심으로 한 어떠한 연합연관을 만들 가능성도 충분하였다. 기회를 포착하는 점에 있어서 실패한 것이다.<sup>63)</sup>

한편, 1929년에 일어난 광주학생운동은 근우회와 신간회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신간회는 광주학생운동에 대한 비판연설회를 준비했으나 민중대회 사건으로 비화되면서 주요 간부들이 구속되었다. 근우회는 조직적인 결합은 아니지만 허정숙, 박차정 등의 간부들이 경성에서의 1929년

59) 「신흥청년 조사」, 『동아일보』, 1927년 6월 14일, 2쪽.

60) 「신간경성지회 숙명교사건조사」, 『조선일보』, 1927년 7월 2일, 2쪽.

61) 「학생맹휴 반발과 신간회의 대책」, 『조선일보』, 1927년 7월 22일, 2쪽.

62) 「신간경성지회의 맹휴비판연설」, 『조선일보』, 1927년 8월 17일, 2쪽.

63) 황신덕, 「1927년 여성운동의 회고(2)」, 『조선일보』, 1928년 1월 2일, 5쪽.



12월과 1930년 1월의 여학생시위를 주도하면서 체포되었다. 그런데 두 단체 간에 광주학생운동과 관련한 조직적이고 직접적인 연대는 없었다. 하지만 양자 모두 학생운동을 중시했던 만큼 광주학생운동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각각 광주학생운동이라는 사건에 대응하는 행동에 나섬으로써 간접적인 연대 활동을 전개했던 것이다.

먼저 신간회가 나섰다. 11월 3일 광주에서의 조선인과 일본인 학생의 충돌은 신간회 광주지회의 전보로 신간회 본부에 알려졌다. 신간회 중앙상무집행위원회는 광주지회에 사건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11월 9일에는 현지조사를 위해 집행위원장 허헌과 서기장 황상규, 회계 김병로를 광주에 파견했다. 11월 15일 신간회 중앙상무집행위원회는 ‘광주학생사건 보고 대연설회’ 개최를 기획했다. 11월 23일에 개최된 제2회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황상규가 조사결과를 발표한 다음 당국의 조선인 학생에 대한 태도가 불공평한 점을 조선총독부에 진정하고 비판연설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비판연설회는 경찰의 저지로 무산되었다. 이에 신간회는 다시 허헌, 홍명희, 이관용, 조병옥의 주도로 다시 비판연설회를 준비했다. 그런데 경성에서 12월 초 광주학생운동에 동조하는 맹휴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12월 4일 경성제이고보를 시작으로 맹휴가 이어지면서 12월 9일에는 연합시위로 발전했다. 다음날에도 맹휴와 연합시위가 계속되었다. 이날에는 경성의 여학교로는 처음으로 숙명여고보와 근화여학교가 맹휴를 단행했다. 12월 11일에는 진명여고보, 경성여자상업학교, 동덕여고보, 실천여학교, 정신여학교 등 여학교에서만 맹휴가 일어났다.

경성에서 학생 연합시위가 한창이던 12월 10일 신간회 간부 허헌, 조병옥, 홍명희, 이관용, 권동진을 비롯해 동아일보 사장 송진우, 조선일보 부사장 안재홍, 중외일보 조사부장 이시목과 손재기, 한용운, 주요한 등이 학생운동 대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그 자리에서 민중대회 개최와 시위운동 조직을 담은 결의문을 작성해 그날 밤으로 사회단체에 회람했다. 민중대회는 12월 14일에 개최할 예정이었다. 격문을 작성하고 주요 단체의 간부들을 만나는 등 준비가 본격화되었지만 경기도 경찰부가 이를 탐지하고 중지를 요구했다. 신간

회는 12일 밤 급히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날짜를 변경해 다음날인 13일을 기해 자동차로 광고문을 살포한 후 시내 변화가에서 광주학생사건 진상발표대연설회를 개최하고 검거가 시작되면서 즉시 시위운동으로 전환할 계획을 세웠다. 또한 신간회 지회에 대해서도 본부와 동일한 행동을 취할 것을 지시하기로 결정했다. 신간회 주도로 전국적인 시위운동을 계획했던 것이다. 하지만 13일 새벽 허헌을 비롯한 신간회와 사회단체 간부 수십 명이 체포되면서 민중대회 개최 시도는 좌절되고 말았다.<sup>64)</sup>

앞서 언급했던 12월 11일의 동덕여고보와 경성여자상업학교의 맹휴는 바로 사회주의 여성운동가로서 근우회 서무부장인 허정숙과 조사연구부장인 박차정의 주도로 준비된 것이었다. 그런데 근우회 조직적 차원의 활동은 아니었다. 정중명은 “이번 학생들의 소요는 학생 자체의 운동으로서 별도로 우리들이 간섭할 필요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학생들이 함구하고 있는 것을 구태여 우리들이 움직이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것을 또 우리들이 저들 여학생을 움직이게 한다면 여학생 그 자체가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서 가치도 손상”된다고 주장하며 가담을 거절했다.<sup>65)</sup> 허정숙과 박차정은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여학교 학생대표들을 모아 시위운동에 대해 의논했다. 박차정은 동래 일신여학교 후배로 이화여고보 4학년에 다니는 최복순을 끌어 들였다. 허정숙은 숙명여고보생인 구무선을 통해 경성여고보 4학년생 김영수와 경성여자상업학교 3학년생 송계월 및 동덕여고보 4학년생 안갑남을 규합했다. 허정숙과 박차정은 12월 11일 각 여학교에서 바로 연대맹휴를 일으킬 것으로 지시했다.<sup>66)</sup>

12월 중순에 서울에서 연대맹휴가 확산되는 가운데 학교들은 긴급히 방학에 들어갔다. 그런데 방학이 끝나고 1930년 1월 초순에 개학을 하면서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다시 시위운동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화여고보 4학년생으로 기독교학생회 회장이던 최복순은 12월 시위 당시 조기 방학으로 이화

64) 김성민, 앞의 책, 275~283쪽.

65) 국사편찬위원회, 『증인 정중명 신문조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51, 2002, 57쪽.

66) 국사편찬위원회, 『김행복 신문조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51, 2002, 244~246쪽; 『안갑남 신문조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51, 246~248쪽.

여고보가 시위운동을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sup>67)</sup> 같은 학년인 김진현, 최윤숙과 함께 근우회 서무부장인 허정숙을 찾아가 이 문제를 상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3학기 개학일인 1월 15일에 경성 시내 여학교가 일제히 맹휴와 시위를 전개하기로 뜻을 모았다. 마침내 1월 15일 아침 9시 30분에서 10시 경까지 거의 동시에 실천여학교를 필두로 근화여학교, 이화여고보, 배화여고보, 경성보육학교, 태화여학교, 동덕여자고보, 정신여학교, 경성여자미술학교, 휘문고보, 경신학교, 중동학교, 배재고보, 보성전문학교까지 14개 남녀학교가 시위를 전개했다. 이후 1월 18일까지 나흘 동안 18개 학교에서 7천명의 학생이 시위에 참여했다. 이처럼 1930년 1월에 일어난 경성의 시위에는 여학생들이 앞장섰다. 조선총독부의 조사에 따르면, 시위에 참가한 대부분 여학교에서 전교생이 참가했다. 이로 인해 1930년 1월 30일에 84명이라는 많은 여학생이 검사국에 송치되었다. 그 중 구속자가 26명, 불구속자가 58명이었다. 허정숙도 이때 여학생 주동자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이처럼 광주학생운동의 전국적 확산에 결정적 기여를 한 1930년 1월 15일 경성의 여학생연합시위는 1929년 12월 여학생시위부터 있었던 근우회 간부인 허정숙, 박차정 등의 지도와 지원을 기반으로 일어났다.

1929년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자 신간회는 전국적인 연대 시위를 위한 민중대회를 기획했고 근우회는 여학생 연대 시위를 지도했다. 광주학생운동과 같은 커다란 사건임에도 숙명여고보 맹휴 때처럼 대응기구에서 공동으로 행동하는 연대는 없었고 각자 광주학생운동의 확산을 위한 연대 활동을 지도하고 지원했다.

## 5. 맺음말

오늘날 사회운동에서 연대는 문제시되는 사건이나 사안이 발생했을 때 공

67) 『시내여학생만세사건 제1회 공판 개정』, 『동아일보』, 1930년 3월 19일, 2쪽.

동대응기구를 만드는 적극적인 실천부터 지지를 선언하는 소극적인 실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런데 1920년대 협동전선에 기반한 민족유일당을 지향하며 등장한 신간회와 여성운동의 협동전선으로 출현한 근우회는 사건 혹은 사안별로 양자 간의 연대기구를 만들어 활동하지 않았다. 언론집회폭압탄핵대연설회, 재만동포옹호동맹 등 사회운동단체들이 만든 공동연대기구에서는 함께 활동했지만, 1930년에 일어난 근우회의 『별건곤』 불매 및 박멸 운동처럼 근우회의 활동이 사회적 쟁점이 되었을 때 신간회는 별건곤사 사장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연대 차원에서의 지원 활동을 펼쳤을 뿐, 이 운동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연대기구 결성이나 연설회 개최 등에 나서지는 않았다.<sup>68)</sup>

이처럼 근우회와 신간회 간의 연대는 ‘자매단체’라는 표현이 무색할 만큼 창립 초기 1년간 집중적으로 상호 지지를 표명하는 선언적 연대가 주를 이뤘다. 그나마 근우회와 신간회에서 동시에 활동한 여성운동가들을 통한 인적 연대는 양자가 해소될 때까지 명맥을 유지했다. 실천면에서 볼 때 두 단체의 활동 초기에 발발한 숙명여고보 맹휴사건에서는 학부형회라는 공동대응기구에서 함께 행동하는 면모를 보였지만, 활동이 차츰 위축되던 시기에 일어난 광주학생운동에서는 여학생 연대를 지도하고 지원하거나 전국적 연대를 촉구하는 민중대회 계획을 준비하는 등 별도로 대응하는 간접적인 연대에 그쳤다. 이처럼 근우회와 신간회 각각은 연대체이면서도 양자 간의 직접적인 연대를 시도하지 않았으며 사회운동 차원에서의 느슨한 연대로 각립했다.

68) 1930년 근우회가 『별건곤』의 1930년 2월호에 실린 근우회의 ‘부인직업소개부’에 대한 과도한 풍자에 항의해 불매 및 박멸 선언을 하자 신간회는 “금후로 일체 조선운동에 대한 동종 기사를 취급하지 말 것, 근우회에 대해 별건곤사 책임자가 사과할 것” 등을 요구하며 근우회에 대한 연대 지원에 나섰다.

## ■ 참고문헌

-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외일보』.
- 경기도경찰부, 『치안개황 1929년 5월』.
-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51, 2002.
- 강혜경, 「숙명여고보 맹휴사건으로 본 식민지 여성교육」,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7, 2010.
- 김정인, 「근우회 여성운동가들의 교육계몽론」, 『교육철학연구』 41-4, 2019.
- \_\_\_\_\_, 「일제강점기 경성의 여학생 운동」, 『일제강점기 경성지역 여학생의 운동과 생활』, 서울역사편찬원, 2020.
- 남화숙, 「1920년대 여성운동에서의 협동전선론과 근우회」, 『한국사론』 25, 1991.
- 박상준, 「1920-30년대 평양 지역 여성운동의 전개와 성격 - 평양여자기독교청년회와 근우회 평양지회를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1, 2020.
- 윤효정, 「신간회 운동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7.
- 장원아, 「근우회와 조선여성해방통일전선」, 『역사문제연구』 42, 2019.
- 김성민, 『1929년 광주학생운동』, 역사공간, 2013.
- 김정인, 『천도교 근대 민족운동 연구』, 한울, 2009.
- 김창순·김준엽, 『한국공산주의운동사』 3, 첨계연구소, 1986.
- 신용하, 『신간회의 민족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 이균영, 『신간회 연구』, 역사비평사, 1993.
- 이임하, 『미래는 우리의 것이다』, 철수와영희, 2021.
- 장규식, 『1920년대 학생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 Examination of the Cooperative natur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Geun'u-hwe and Shin'gan-hwe

Kim Jeong-in\*

Shin'gan-hwe was an organization which surfaced in the 1920s, calling itself the one and only party representing the Korean race based on a cooperative front. On the other hand, Geun'u-hwe was an organizational body created by a cooperative front in the Women's movement. These two organizations never worked together or created a cooperative committee, even on individual issues or cases. They were called as 'sister organizations,' but their cooperation lasted merely a year, during which they did declare their support of each other, in the very early stage of both of their foundations. One may say it was only an exchange of supportive words and nothing more. What did exist between the two bodies was a marginal human connection, enabled through the Feminist movement activists who were involved with both organizations. Such connection remained till both of them were dissolved.

In the early days, when students of the Sukmyeong High/Middle school for Girls ("Sukmyeong Yeo-gobo") entered an allied strike (refusal of classes), both organizations cooperated with each other within the confines of a response committee named the Parents Association. But when the Gwangju Students Movement broke out, both organizations were in pretty bad shape, and they only responded to the situation separately, like together just making

---

\*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Professor

preparations for the People Convention under the goal of guiding, supporting and overall promoting School girls' alliances all across the country. As we can see, Geun'u-hwe and Shin'gan-hwe stood independently till the end, never attempted any organizational alliance, but maintained its mutually supportive stance as well as a low-key cooperation with each other, in social movements nonetheless.

**Key words** : Geun'u-hwe, Shin'gan-hwe, alliance, sister organization, cooperative front

